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대대손손 찾던 만고의 기원이 왔노라, 범광에 젖어 마음을 정화하자
생명 안전이 보장되었네. 진상 자료 복을 전해, 시비 선악 명백히 구별했네
구원에 감사들이며 성심으로 읽고 있노라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세밀화 《진실을 아는 순간》 작품은 세인이 파룬따파가 좋다는 진상을 료해한 그 순간 한 생명이 범광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지니고 있다.

하늘이 내린 홍복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계렬 이야기



- 로중의의 전설적인 인생
- 나의 꿈은 이루어졌다
- 대형 화물차 운전자 바라던 기적 이루어져
- 마을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결정

제5기
명혜 정기
간행물



목록 CONTENTS

서두 일문	3	의학 조사	21
진상을 분명히 밝히면 행운이다		파룬궁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의 길	4	건강히 하는 효률 98%	
로중의의 전설적인 인생		심신 정화	22
나의 꿈은 이루어졌다		환골탈태적인 변화	
복성이 높이 비추다	10	마을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결정	
무기개를 또 보았다		과학연구	30
당신은 알고 있나요	13	선한 마음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파룬따파 흥전 세계		구명 비결	31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다	14	놀라 의기소침해 진 세명의 강도	
대형 화물차 운전사		해상 탈출	
바라던 기적 이루어져		진상 환원	34
녀 화가 7미터 나무 선반에서		기밀 해제	
떨어진 후			

체적, 중거리, 가까운 거리, 특수한 장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때려 죽인다 해도 나는 믿지 않습니다.

한 장면에 많은 허점

CCTV 《초점 토크 쇼》의 “분신 자살” 화면 속에서 선명하게 보인다:

1, “분신 자살자” 왕진동의 옷은 불에 타서 망가졌는데 두 다리 사이에 휘발유를 담은 비닐 음료 병은 고온에서 오히려 불에 타지 않았고 새것처럼 새파랗다.



2, 가장 쉽게 연소할 수 있는 머리카락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3, “분신 자살” 사건은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다음해에 발생했다. 과거 천안문 광장에서 파룬궁 수련생이 발견되면 경찰은 즉시 입을 막거나 구타했는데 그들이 중국 공산당의 박해를 폭로하는 구호를 외칠까 봐 두렵기만 했다. 그러나 이번 CCTV 화면에는 경찰이 소화 탄자를 들고 한가하게 “분신 자살자”의 뒤에서 있다가 왕진동이 구호를 외치자 비로서 소화탄자를 왕진동의 머리에 쏜 것이 경찰의 평소 행태에 부합되는 것일까? (윗 사진)

관광객의 우연한 만남

한번은 동료와 이야기를 나눌 때 17년 전 “천안문 분신 자살” 사건을 말하며 나는 그에게 진상을 알려주려 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은 그가 나를 향해 신비롭게 웃으며 아주 긍정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건 가짜야!” 나는 급하게 물었다. “넌 어떻게 알았니?” 그는 “분신 자살” 이 발생하기 직전 천안문 광장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의 친구는 마침 북경을 경유하던 중이라 원래는 기차를 기다리는 몇시간 동안 천안문 광장에 가서 보려고 했는데 마침 계엄에 걸리어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에게 왜 계엄령을 내렸냐고 물었다가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그는 귀가한 후에야 비로소 그가 북경을 떠나 얼마되지 않아 그 이른바 “분신 자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래 천안문 광장에서 미리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바로 이 연극을 연출하기 위해서이다. 17년 전 공들여 기획한 세기의 속임수, 어떤 이들이 강력하게 봉쇄하고 있던 국가의 최고 기밀은 오히려 평범한 백성에게 쉽게 기밀이 해제되었다. ◇



기자 확인

2001년 1월 23일 오후 천안문 광장에서 5개의 불길이 타올랐다. 사고 두시간 후 신화통신 CCTV는 이례적인 속도로 중문과 영어로 전세계에 파룬궁 수련생 다섯명이 천안문 광장에서 분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의 소리 기자가 공안 부와 북경 공안국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조사했더니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대답했다. 당사자는 병원 응급실로 보냈고 공안 기관의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신화통신과 CCTV는 이미 “분신 자살자”를 손금 보듯 꿰뚫고 있었다. 이처럼 논리가 비정상적으로 드러난 것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준비된 음모론이었다

사진 작가의 은어

나는 일찍이 전문 사진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천안문 분신 자살”이 거짓이라고 말할 때 뜻밖에 그는 조금도 의외가 아닌듯이 아주 담담히 이것은 토론할 필요가 없는 화제라고 말했다. 준비해 둔 여러대의 카메라가 동시 촬영되지 않고 단지 현장의 사람들이 돌발적인 사건을 다그쳐 촬영한다면 화면이 어찌 그렇게 안정되고 뚜렷할 수 있는가? 먼거리, 전



■ 경계선 안의 남자는 군경 사이에서 침착하게 촬영하고 있다.

진상을 분명히 밝히면 행운이다

짧은 인생에
 밤낮 악착같이 일하고 분주히 뛰어다니며
 명리 사랑과 원한에 얽히어
 슬픈 고통을 겪었다네
 활로를 찾아 헤매고
 병난으로 방황하고 있네
 망망한 우주에
 인생의 복은 어디에 있는가?

정법(正法)이 흥전하고
 구제된 중생 자애로운 빛을 누리네
 대법이 선량한 사람을 깨우쳐 주어
 심신이 유쾌하고 건강하다네
 진심으로 진선인을 읽으니
 행복이 높이 비추어 상서롭네
 기회를 포착하고
 진상을 분명히 밝히면 행운이다!



로중의의 전설적인 인생

문/신위(新宇)

나는 의사로서 의사 노릇을 한지 반세기 넘었다. 나의 인생은 전설로 가득 차 있다.

나의 뜻밖의 만남

나는 8살 때부터 의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스승은 78세의 년세 드신 분이였다. 원래 나는 그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어느날 나는 거리의 약초 노점 앞에서 놀고 있는데 약초를 파는 늙은 선생님께서는 마치 몇 년 동안이나 헤어졌던 친인을 만난듯이 두 손으로 나를 감싸 안고 입으로 계속 말했다 “찾았네! 찾았어요! 찾았어요! ……” 그 때부터 나는 이 로인을 따라 민간 중의 약초를 배웠다.

겨우 반년을 배운 1962년 공산당은 “3반5반” 운동을 일으켰고 늙은 선생은 미처 모면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갇혔는데 이렇게 5년이나 갇혀있었다.

이후에 나는 또 몇몇 스승을 모셔서 의학을 배웠다.

11살 때 나는 또 108세의 스님을 만났는데 나에게 의술과 기공을 가르쳐 주었다. 그이가 나에게 가르쳐 준 매우 많은 의술은 모두 민간에서 력대로 한 사람에게만 전수해 내려온 것들이다. 이런 의술이 많은 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매우 좋았고 현대 의료 기술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그 후 다년간의 의료 과정에서 검증 받았다.

현실이 된 예언

내가 열 몇살쯤 되었을 때 예측학을 정통한 의사 스승은 나에게 이생에 나는 1997년까지 살 수 있는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알려 주었다. 나는 이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며 게다가 그때는 어렸고 예언이 실현될 시간 역시 아직 멀었고 죽음이 무서운 것도 모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계속 평소와 같이 의사생활을 하였다.

시간은 아주 빨리 지났는데 80년대 말에 접어들어 나는 40살이 되었으며 이때 나는 아주 희귀한 림파암에 걸렸다. 나의 모든 의술은 이 병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파룬따파 사부님께 목숨을 구해달라 함과 아울러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썸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를 소리 내어 읽었다.

세번 읽자 기적이 나타났다. 원래 잔잔한 바다에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다. 거대한 파도가 한 방에 높이 치솟더니 작은 목판을 오던 방향을 따라 후퇴시켰다. 거대한 파도는 비록 크지만 작은 목판은 바다 위에서 평온하게 물을 헤치며 앞으로 나갔다……

이튿날 새벽 2시가 되자 그들 둘은 어렴풋이 룽지의 주택을 보았다. 발로 물을 한번 디뎠더니 뜻밖에도 땅이 밟여 보였더니 어제 저녁에 바다 한가운데 묻히던 곳이었다. 그들은 작은 목판에서 내려 세시간 가량 걸어서야 강변의 도로에 왔다. 이때 그들 둘은 마음속으로 다시 태어난 기쁨을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장징과 둘째 외삼촌이 젖은 몸으로 휘청거리며 공장에 들어섰을 때 동료들은 모두 놀라서 어리둥절해 거의 일제히 물었다 “너희들은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렇다. 망망한 대해에서 대낮에 큰 배를 타도 위험이 있는데 하물며 외로이 떠 있는 작은 목판에 사람을 싣고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모두가 고향 사람들이어 동료들은 애타게 기다리며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둘이 무사하게 돌아온 것을 보고 모두들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장징과 둘째 외삼촌이 바다에서 탈출한 사연은 작은 산간 마을에서 신화가 되었다. 파룬따파가 만든 신기함은 한입건너 전해졌다. ◇

돌파프로그램 인터넷 봉쇄를 뚫고 진실한 세계를 보여주다

- 1, 사이트 주소 찾기 : 아래 사이트 주소로 돌파프로그램을 내려받는다
컴퓨터 버전 : <https://git.io/fgp>, <https://git.io/umexe>
안타크 버전 : <https://git.io/fgma>, <https://s3.amazonaws.com/693/um.apk>
- 2, Email 찾기 : 해외전자 우편함으로 freeget.one@gmail.com 혹은 xiazai@upup.info에 우편을 보내되 내용은 임의로 주제는 임의로 하되 비우지 말아요. 10 분내에 바로 몇개 돌파프로그램을 내려받는 주소를 얻게되는데 내려 받은 후 압축을 풀면 사용할 수 있다.

주의사항 : 국산 브라우저로 이러한 주소를 열 수는 없을 것이니 IE, Edge, Chrome 혹은 파이어 폭스 등 브라우저 사용을 권의합니다.

해상 탈출

문/시무(西木)

장징(张敬), 40 대이며 료녕성 호로도의 작은 산촌에서 살고 있다. 2017년 4월 그와 한 마을에서 사는 둘째 외삼촌은 집에서 가까운 동대하 관광 개발구에서 일을 했다.

13일 저녁 7시쯤 장씨와 둘째 외삼촌이 바닷가로 놀러 갔는데 길이 약 2m, 너비 1m에 기포 비닐을 간 목판을 보았는데 옆에는 작은 나무 노대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현지 어민들이 해변에서 해양 화물을 건네는 공구이다. 갑자기 흥이 난 그들 둘은 올라 앉아서 나무 노를 젓으며 수면에서 떠 다녔다.

한창 즐기고 있을 때 장씨는 갑자기 손에 힘을 쓰지 않았는데 작은 목판은 오히려 아주 빨리 가고 있다고 느껴졌다. 자세히 살펴보니 원래 바닷물이 퇴조하고 있었다. 어느 덧 그들 둘은 기슭을 떠나 퇴조하는 썰물을 따라 바다 깊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 상황을 본 그들 둘은 목숨을 걸고 되돌려 노대를 저었으나 작은 목판은 조금도 돌아가지 않았다. 물이 깊기에 그들은 또 물에 들어 갈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 해가 저물어 어둠이 깔려 캄캄해졌는데 하늘과 물이 맞닿아 있고 물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작은 목판은 그들 둘을 태우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련쪽으로 가고 있었다.

공사 현장의 숙소에서 동료들은 그들 둘을 찾지 못하여 애를 태우며 마음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손쓸 방도가 없었다. 장징의 사위는 너무 고향질러 목이 다 쉬었으나 그 무정한 바다는 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끝장이야! 이번엔 우리 둘을 버린 셈이네!” 둘째 외삼촌은 절망적으로 말했다. 장징은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우리 집에는 80세가 넘는 로인을 보살필 사람도 없고 다섯살짜리 외손자가 걱정됩니다.” 고 말했다. 가망이 없는 중에 장징은 갑자기 파룬따파가 생각났다. “3퇴”(중국 공산당 당원, 탄원, 소선대에서 탈퇴) 후 장징은 항상 파룬따파 호신부를 걸고 다녔다. 이 때 호신부는 바로 그의 목에 걸려 있었다. 여기까지 생각한 장징은 곧바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없었다. 나는 사천성인민병원, 사천성중양병원에서 몇 차례 수술을 받았다. 마지막 수술 후 주치의학 교수는 “운이 좋으면 몇 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고 말했다.

그 의사 선생님의 예언은 과연 현실로 되었다. 1997년 봄 암이 재발하고 확산되면서 온 몸에 종양이 많이 퍼진 동시에 또 위 하수, 위 궤양, 골 증식, 요추간판 탈출증, 심한 폐기종 등 여러가지 질병이 있었다. 암 세포의 확산과 다른 질병의 시달림 속에서 몸이 허약했고 체중은 80~90근에 불과했다. 계단을 오를 때 나는 두 손을 바닥에 대고 계단을 하나 하나씩 올라갔고 계단에서 내려 갈 때 나는 손으로 계단 난간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었다. 가슴을 졸이는 아픔은 언제나 나를 괴롭혔다. 아무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가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나의 후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늘이 내린 홍복

그런데 세상의 일은 마치 연극처럼 누군가가 공들여 준비했 듯이 가끔 신기한 힘을 나타내고 있다.

1997년 9월 6일 밤 나는 이 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 날은 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하늘이 홍복을 내렸다—몇몇 파룬궁 수련생이 나의 집에 와서 나에게 《전법륜(转法轮)》(파룬궁의 주요 저작) 책을 주었다. 그들은 파룬궁 수련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고 도덕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나의 생각은 나 같은 암 말기 환자가 아직도 수련할 시간이 있는가? 나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한번 해 보고 싶었다. 그날 저녁 나는 《전법륜》 제 1장을 읽었고 또 《법륜불법 대원만법(法轮佛法大圆满法)》을 다 보았다.

나는 밤새 자지 않았는데도 졸리지 않았다. 아침, 나는 얼른 가냘픈 몸을 이끌고 인근에 있는 련공점에 가서 파룬궁을 배웠다.

처음 파룬궁 수련을 시작할 때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련공했다. 어느 날 나는 《전법륜》을 펼치자 리홍쯔 사부님께서 웃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웃음 소리는 매우 우렁찼다. 이런 광경은 약 1분간 계속되었다. 나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저를 격려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자 나는 감격에 비할 데 없이 눈물이 핑 돌았다. 그후 나는 파룬따파를 더욱 굳게 믿었고 몸이 얼마나 허약하던 얼마나 괴로워도 매일 꾸준히 파룬궁의 책을 보며 련공했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나는 몸을 건강하

게 하려면 “진, 선, 인(真, 善, 忍)” 의 기준에 맞춰 자신의 심성을 높이고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욱이 인간의 목적은 “반본귀진(返本归真)” 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 두달이 흘렀다. 내 몸에 암 세포가 어느새 없어지고 다른 10종의 질병도 사라졌는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몸은 완전 건강했다. 나의 체중도 30근이 증가했다. 가족들과 친인들은 감격스러워 하면서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겼나요?! 아들은 사람만 만나면 “이 파룬궁은 정말 신기합니다!” 고 말했다.

20년 후 생명의 기적

파룬궁 수련을 해서부터 나는 주사 한 대도 맞지 않고 약 한알도 먹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중국 공산당 언론의 거짓 말 처럼—파룬궁이 약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워낙 건강해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20여년이 지났는데 몸은 병들기 전보다 건강하고 매일 의사 노릇을 하는 나는 온몸이 활력이 넘친다. 지금 나는 60대인데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은 모두 내가 40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추운 겨울, 심지어 눈이 내리는데 의사 선생은 왜 아직도 홀옷 두벌만 입고서 춥지 않나요?” 눈이 내리는 겨울날 오리털 패딩을 입은 한 환자가 놀라 물었다. 나는 말했다. “나는 파룬궁 수련생입니다. 몸은 당연히 좋지요.” 이 환자는 나의 두 손을 만져 보고 감개무량해하며 말했다. “당신의 손이 정말 따뜻해요. 당신들 파룬궁 수련은 정말 신기해요!”

여러 해 전 그 의사 스승님이 나의 수명을 예언한 것 역시 옳았는데 단지 내가 파룬따파를 수련했기 때문에 비로서 이 모든 것이 바뀌어졌고 하늘이 정한 생명이 비로서 연장될 수 있었다.

인간의 이 신화를 목격한 친인 친구 및 이웃들은 늘 말한다. 20여년이 되었는데 그 죽음의 변두리에 있던 의사가 아직 살아 있었고 아직 건재한 이걸 정말 기적입니다. 파룬궁이 그를 살려 냈습니다! ◇



놀라 의기소침해 진 세명의 강도

문/칭양(淸陽)

운전사 양순과 아내는 같은 개인 택시를 몰았는데 한분은 낮에 한분은 저녁에 운전을 했다.

어느 날 밤 양순의 부인이 차를 몰고 나갔는데 방금 도로에 도착하자 세명의 사나이가 차를 타려 했다. 차에 오르자 그들은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지 않고 그중 한 사람이 성시 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앞쪽이요.”

양순의 아내는 얼마간 가다가 “도착했나요” 라고 물었다. 그들은 “아직도 앞으로 가요” 라고 말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자 그녀는 약간의 의혹을 품고 있었다. 차가 성 밖으로 빠져 나와 인적이 없는 곳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세명의 남자는 그녀한테 차를 세우라며 바로 흉악한 몰골을 드러냈다. 그중 한 남자는 칼을 양순의 어깨에 놓고 “돈 내봐라!” 고 협박했다.



양순의 아내는 놀랐다. 악당을 만났구나! 그녀는 두려워 떨며 말했다. “내 몸에는 90여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돈 지갑을 만지는데 갑자기 파룬궁 수련생이 그녀에게 준 호신부가 만져지자 파룬궁 수련생이 알려준—위험에 닥쳤을 때 성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전산런하오

(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를 읽으라고 한 말이 생각났다. 그러자 그녀는 마음 속으로 “파룬따파하오, 전산런하오” 를 묵념하며 또 리홍쯔 사부님께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순간 그녀는 어깨위에 있던 칼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몸을 옆으로 돌려 보니 세명의 폭도들은 멍해져 그들은 겁에 질린듯 꼼짝하지 못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이 정경을 본 양순의 아내는 곧 그들을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 방금 까지도 심하게 흉악했던 세명의 악당은 짝 소리 못하고 차에서 내렸다.

놀라 닳을 잃은 아내는 바로 차를 몰고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하자 양순에게 서술할 때에도 여전히 놀라 죽을 지경이었다.

이 일을 겪은 후 부부 두 사람은 “파룬따파가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했다. 호신부가 하나뿐이기에 그들은 누가 차를 몰면 누가 호신부를 지니기로 결정지었다. ◇

선한 마음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황제내경(黄帝内经)》에서 “바른 기가 안에 있으면 사악이 어쩔수 없다(正气存内, 邪不可干).” 고 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 점을 증실했는데 그들은 정념이 늘 있으면 사람의 면역체계가 튼튼해지고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은 흔히 더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내분비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과학자들은 신경과 화학 분야의 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을 발견했다: 사람이 선한 마음을 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면 사람의 신체에서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신경 전도 물질을 분비하고 면역 세포도 활성화되어 사람은 쉽게 병에 걸리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 속에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인체 내분비 방향은 상반된 신경 계통으로 가는데 즉 부적인 계통을 작동하게 되어 정면 체계는 제어 되고 신체 기능의 양성 루프(回圈)가 파괴된다.

에너지의 신기한 전환: 주면 꼭 보답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생명 윤리학과 교수 스티븐·노먼 포스터가와 소설가 키르니네 마크는 현대 과학과 의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갖가지 선행에 대하여 ‘주다’ 와 ‘보답’ 사이에 과연 어떤 관계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상세한 측량 표를 작성함과 아울러 달갑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부문별로 나누어 매 항목마다 ‘주다’ 가 가져오는 ‘보답’ 에 대해 물리적 통계와 생리학적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주다’ 로 생겨난 “의료작용” 과 “즐거운 지수” 를 제시했다: “마음 씩씩이가 어질고 관대하며, 선행을 베푸는 사람” 이라는 사람들의 선행은 확실히 그들 자신의 심리와 신체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들 스스로의 사회적 능력, 판단력, 긍정 정서 및 마음가짐 등이 전반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 친숙한 미소, 다정한 유머를 보이는 이런 단순한 행동은 모두 사람의 침 속에 있는 면역 글로불린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40 여개 미국 주요 대학의 100 여개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보고 그리고 장기간 추적한 실험 보고서에서 나타난 자료를 결합한 후 그들은 놀라운 결론을 얻었다: 주고 받는 것 사이에 신기한 에너지 전환의 비밀이 존재한다. 즉 한 사람이 주는 동시에 보답의 에너지가 바로 다양한 형태로 이 사람에게 반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

나의 꿈은 이루어졌다

문/ 무구이화(穆桂花)

일생 동안 내가 많은 것을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이런 취미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찾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인데 나는 자나깨나 좋은 몸을 가지려고 갈망했다.

불치병에 걸려 마음이 사그러진 재 갈다

나는 료녕성 영구에 거주하고 있다. 현지에서 나도 명성이 있는 편인데 주방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비에도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1980 년대 기공 고조중에 나는 각종 소위의 기공을 많이 배웠는데 병도 낫지 않았으면서 또 바보처럼 다른 사람에게 병을 치료해 주었다. 나는 또 스승을 모시고 태극권을 배웠는데 어떤 방법이 몸을 건강히 할 수 있다는 말만 들으면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배웠다. 무슨 춤을 추든 당구를 치든 나는 모두 참여했는데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007년 직장인 신체 검사에서 단련을 중시했던 나는 오히려 유방 암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중말기에 들어섰다. 이 갑작스러운 비보에 나는 놀라서 기절하였는데 정말 날벼락이 었다!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줄곧 생명과 싸우던 나는 단번에 녹초가 돼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2007년 7월 7일에 나는 심양 의대에 입원했고 다섯번의 화학 치료를 받았다. 화학 료법이 끝난 후 의사는 내 왼쪽 유방을 잘라 냈다. 수술 후 또 다시 고통스러운 화학 료법이 시작됐다.

그동안 겪은 고생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데 같은 병을 겪어 본 사람만이 비로서 그 속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온몸이 나른해 침대에 누워있었고 계속되는 구토로 밥을 먹기가 정말 힘들었으며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배는 마치 곧 해산하려 하는 임신부 같았다. 매번 화학 료법을 할 때마다 수만원을 써야 했다. 나는 늘 푸른 하늘을 향해 외쳤다. 운명이 왜 이렇게 나를 대하는가!

이 때 파룬궁을 수련하는 한 언니가 나를 찾아와 나에게 파룬궁을 소개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사람의 관념이란 많은 때에 이렇게 완고하며 진리가 앞에 놓여

있는데도 자기 고집을 부리며 몸소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매일 병에 시달리며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 것으로 암 세포의 전이를 방지했다. 체력이 조금만 나아지면 나는 또 공원에 가서 태극권과 태극선(太極扇)을 연습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련은 나를 건강하게 해 주지 않았고 화학 요법,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것 역시 암 세포의 확산을 막아 내지 못했고 또 간, 가슴 두번째 척추골에 전이 되었다. 왼쪽 쇄골에 림프선이 튀어나왔는데 거위 알 만한 크기의 림프선이 식도를 눌러 나는 삼킬 수 없게 되어 유동식 음식밖에 먹을 수 없었다.

2011년 12월에 나는 다시 화학 요법을 시작했다. 하루 종일 주사를 맞고 약을 한줌씩 먹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내 손과 발, 얼굴의 삼각 구역은 온통 검은색을 띠었다. 가족들은 나를 병원으로 다시 데려갔다. 병원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그녀를 집에 데리고 가서 잘 보살피세요. 기껏해야 석달 살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병원의 거절은 나를 완전히 절망시켰다. 집에 돌아온 후 가족들은 매일 반찬 4가지에 국 한 그릇을 끓여 알뜰히 보살폈지만 곧 닥칠 죽음을 맞는 내 마음은 사그러진 재 같았다.

《전법륜(转法轮)》을 보고 생명의 희망을 맞이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회상했다. 4년 동안 약을 적지 않게 먹고 주사도 적지 않게 맞았고 신체 단련도 많이 했었는데 무슨 수든 다 썼어도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죽기를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나는 겨우 예순이 넘었는데 아직은 죽고 싶지 않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강렬한 삶의 욕망이 불타올랐는데 나는 파룬궁이 생각났고 그 파룬궁 언니의 권고가 생각났다. 언니는 나에게 파룬대법은 불가 상승의 수련대법이라고 알려주면서 “천안문 분신자살”은 전부 거짓말이며 공산당이 파룬궁에 먹칠을 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알려주었다…… 또 몸소 겪은 파룬따파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신기한 효과를 알려주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나는 파룬따파를 수련하려고 마음먹었다.



2012년 초부터 나는 매일 《전법륜》 책을 읽었다. 거듭 읽고 나는 사람이 왜 병에 걸리는 것을 알았고 과거 도무지 리해가 되지 않던 많은 문제를 똑똑히 알았으며 인생의 참뜻을 알았다…… 《전법륜》이 책을 나는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었다. 동시에 나 역시 놀랍게도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자신감이 커졌다. 나는

“걱정 마세요. 장씨 누나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나는 전체 기관 간부들 앞에서 청성에게 말했다. “장씨 누나의 일자리를 당신에게 줄게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그는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그는 말했다. “장씨 누님 나한테 양보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나로하여금 이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나는 이미 만족하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 말한대로 합니다.” 나는 즉시 종이 한장을 떼어 내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일자리를 양보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주위의 지도자와 동료 수십명이 모두 조급해 하며 나를 부렀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 애석해했다.



다년간 일하던 직무를 그만두고 떠날 때 마음 속에는 실망이 없고 그저 기쁨과 위안으로 태연하였는데 전혀 없었던 흥분함과 해탈된 느낌이었다. 저녁에 상사는 남편에게 내가 후회하여 대성 통곡하고 있지 않는지 어서 집에 가서 위로해 주라고 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내가 한창 조용히 《전법륜》 책을 보고 있었다!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이틀 후에 성, 시, 현급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나를 취재하면서 나에게 어떤 경지 이기에 이렇게 큰 리익을 양보할 수 있는가고 물었다? 나는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는데 파룬따파가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으며 죽는 사람을 보고 구하지 않을 수 없지요!” 라고 말했다.

며칠 뒤 직장인 100여명의 환송회에서 모든 사람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고 마음은 매우 평온했다.

얼마 안 되어 나는 또 좋은 생활 경제 수입원이 생겼다. 원래 규정에 따르면 임용되고 하지 않으면 공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 후에 지도자는 특별히 나에게 임용 로임을 한푼도 적지 않게 또 매달 40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또 나에게 농업 과학 기술 과목을 하나 안배하여 성장을 따라 각 향진에 가서 강의를 했다.

이렇게 승부욕이 강하고 강한 성격을 가진 여자가 오히려 기꺼이 초빙받은 직위를 다른 사람에게 순순히 양보한 이 일은 현지에서 파문을 일으키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파룬따파 제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했다. 나도 기회를 틈타 그들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말해주며 그들의 마음 속에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복음을 심어주었다. ◇

의로 출자하였다. 기업의 수익성이 좋으니 이 지도자는 기업을 독점하려 했다. 비록 자신이 힘들게 창업한 기업의 성과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니 기분이 좋지 않고 내버리는 것이 매우 쉽지 않지만 나는 반드시 파룬따파의 요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내려 놓고 증권을 퇴주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이 현 지도자와 두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에 나는 그에게 말했다. “파룬따파를 수련하지 않았다면 나의 성격으로 말하면 절대로 당신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파룬따파는 우리들에게 일에 봉착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권리와 이익을 다투지 말며 만사가 순리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는 승복하였다.

1999년 가을 우리 현에서 공무원 선발 임용을 하게 되었는데 문건 규정에는 초빙되어 하지 않으면 공직을 떠나고, 임용되지 않으면 실직하여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총 득표수는 128 표인데 나는 표가 매진에 가까운 126 표를 얻었다.

우리 직장의 청성이라고 부르는 젊은 청년은 매우 정직하고 아주 훌륭한 젊은 간부인데 어떤 리유로 초빙에 실패하였다. 그는 몹시 서운히 생각 하면서 죽음으로 불평을 하소연하려 했다. 며칠 동안 가족들은 줄곧 그를 따라다니며 지켜보았는데 아이는 겨우 여섯살이었다.

어느 날 대문 밖에서 나는 그의 아내와 아이를 보았다. 그의 아내는 나에게 남편을 권고해 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그의 집에 들어서자 그의 눈이 별경게 부어 오른 것을 보았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장씨 누나가 오셨네요, 앞으로 저의 아내와 아이를 당신께서 많이 돌보아 주세요.” 나는 이것은 나에게 이별을 말하고 있음을 알고서 다급히 그에게 말했다. “우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몇몇 지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통했지만 모두 그를 도울 방법이 없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생각을 넓게 가지라고 권고하였다. 대화 중에 나는 그가 여러 가지 큰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느꼈는데 그는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고귀한 생명을 마주 보면서 나는 그가 헛되이 죽어 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의 가족 세명의 처참한 눈빛을 바라보며 나는 갑자기 마음속으로 나의 직무를 양보하자고 생각했다! 이 일념에 자신이 경악하고 또한 마을 전체를 놀라게 했다. 나는 선명하게 거의 만표로 임용하였고 이 일자리는 또 극히 특수하여 보통 사람이 구할 수 없는 좋고도 수입이 많은 직위이다. 이 세식구를 구하기 위해 나는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직장은 없지만 나는 그래도 살아 있다고 생각했다. 나의 목숨은 사부님께서 주셨으며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무사무야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라고 하셨기에 나는 마음을 확고히 하고 청성에게 말했다.

희망이 있다! 나는 꾸준히 수련을 견지할 것이다! 후에 파룬궁 수련생이 또 나에게 런공 동작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나는 매우 빨리 제고했고 몸의 변화도 매우 컸다.

2월의 어느 날, 남편이 나에게 토마토 목이 버섯을 넣은 계란탕을 만들어 주었는데 물기 없는 것을 먹지 못하기에 죽밥을 국으로 대신해 먹었다. 먹다가 목이 버섯 한 조각이 나의 식도에 꽂혀 뱉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않자 나는 물로 아래 쪽으로 내려보냈다. 원래 식도가 좁아서 내려가던 물은 자꾸 위로 튀어 올라 온몸에 튕겼는데 숨이 막혀 나는 흰자위를 번득이였다. 가족들은 모두 이 장면에 놀랐다! 남편이 병원에 가자고 서두르자 나는 손을 흔들며 거절했다. 모두들 견결한 나의 태도를 보고 멍하니 넋을 놓고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전법륜》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죽고 사는 것은 사부님께서 결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일찍이 저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으니 나는 이 생을 사부님께 맡겼습니다. 책을 보고 있는데 강한 기운이 몸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와” 하는 소리와 함께 한기다 물줄기가 막혀 있던 것과 국밥을 함께 입에서 튕겨나왔는데 잇따라 한덩어리 한덩어리의 끈적끈적한 점액이 나왔다. 나는 갑자기 온몸이 편안함을 느꼈다. 가족들은 모두 한숨 돌렸고 남편은 한 칸에서 감탄했다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이번엔 당신들 사부님께서 당신의 병을 완치시켰네요.”

정말 그렇다. 그 이후로 만두, 떡, 마른 밥을 나는 다 먹을 수 있었다. 나는 온몸에 힘이 넘치고 원기가 왕성해지고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 각종 증상이 모두 사라져 나의 병은 완전히 나았다! 사부님의 사진 앞에 꿇어앉은 나는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매우 감동했다. 사부님께서 생명을 살려 주신 은혜를 제지는 어찌 갚으리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는 일생 동안 건강을 찾기 위해 굶은 길을 너무 많이 걸었고 반평생을 헛고생을 하였건만 그래도 로년에 들어선 나는 진정으로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길—파룬따파를 수련하는 길을 찾았다.

위대한 리홍쯔 사부님께서 저에게 두번째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나의 암은 파룬궁을 수련해 나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파룬따파의 신기함을 증실했고 매우 많은 사람들도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다. ◇



1998년 5월, 료녕 공업 전람관 앞 만명 단체 런공.

무지개를 또 보았다

문/텐원(田云)

아방은 베트남 기자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침착한 여자는 여러가지 질병의 침입을 당하여 청력이 손상받고, 시력이 흐려졌는데 또 색맹이 생기며 시장의 채소를 구별하지 못하고 버스 번호도 알아보지 못하고 신호등도 똑똑히 보이지 않았다.

아방은 어둠과 통증에 둘러싸여 있었다. 절망 속에서 그녀의 흑백 인생은 어떻게 역전될 것인가?

차마 회고할 수가 없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아방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그는 말했다. “몇 년 전에 나는 결핵에 걸렸는데 치료과정은 1~2년이 걸려야 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것은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 베트남 녀기자 아방

결핵은 재발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병균에 내성이 있기에 매번 진찰을 받을 때마다 의사는 아방에게 더 강하고 높은 치료제를 처방했다. 병에 걸린 기간에 아방은 날마다 5~8 가지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모두 30 알을 먹어야 했다. 몸이 많은 양의 약을 지탱하지 못하기에 그녀는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꺼웠다. 항생제 역할로 인하여 아방은 약을 먹은 뒤 여러 번 의식마저 뚜렷하지 않았다.

아방이 약을 계속 복용하였는데 결핵이 완치되지 않고 약의 부작용만 도리어 급세 나타났다. 아방은 약물에 중독되었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청력이 손상돼 보청기를 착용했어요. 내장도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콩팥과 간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었어요. 나는 만성적인 부비동염, 저혈압, 위 식도 역류, 만성 피로 장애, 만성 통증 등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나는 다량의 진통제에 의존해야 했는데 여러 차례 응급 처치를 받았어요”

딸을 치료하기 위해 아방의 부모님은 거액의 돈을 쓰며 사방으로 의사를 찾았고 그들은 또 수술사를 집에 청해 곁을 했다. 그러나 아방의 몸은 갈수록 힘들어졌고 그녀는 지칠대로 치쳐 있었다.

다. 나를 에워싸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생각지 못했는데 나 혼자 서서히 살아났다.

네 개의 폐엽이 돌아왔다

사후 며칠 되지 않아 누군가 파룬궁의 경전 저작 《전법륜(轉法輪)》을 나에게 주었다. 내가 책을 펼치자마자 온몸이 한 줄기 열량에 휩싸이는 느낌이 들면서 매우 편안해졌다. 나는 책에서 말한 도리가 아주 좋다고 생각되어 나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더욱 좋은 사람이 되려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내가 찾고 있던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단호하고 맹렬한 태도는 나의 일관된 태도이다. 나는 빠르게 파룬따파 수련에 녹아 들었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전법륜》 책을 보고 련공하여 두달만에 사부님께서 나의 몸을 정화해 주어 얼굴의 피부는 검은 색에서 하얗게 변해지고 온 얼굴에 생겨난 반점이 없어지고 얼굴이 붉어졌다. 가족, 주변의 동료들은 내가 젊어졌다고 말했다.



오래지 않아 나의 몸에서 또 하나의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나는 파룬따파 수련의 수승함(殊勝)과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었다.

하루는 나는 괴사된 폐세포 몇 개를 필사적으로 토해 냈는데 마치 붉은 수수떡지 같았다. 련이어 108일간 매일 “붉은 수수떡지”를 조금씩 토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9개를 토했다. 그리고는 피거품을 토하기 시작하더니 8일 연속 토했다. 그리고 나서 숨을 쉬면 가슴이 매우 편안해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사진에서 네개의 폐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원래 괴사된 그 폐엽을 내가 조금씩 토해 냈던 거이다. 나의 과거의 병을 알고 있던 의료진들은 모두 사진을 보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 그는 나를 안고 말했다. “우리 집의 행복은 드디어 돌아왔으니 세 식구 모두 안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딸은 “우리 집의 행복은 파룬따파 사부님께서 주셨어요!” 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나의 모든 고질병은 다 나았고 무병하니 온몸이 가벼워 마음은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쁜한 상쾌로움이 었다. 나는 자신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고 집에 있던 몇천원의 약과 구급 상자를 몽땅 내 던졌다.

마을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결정

나는 일찍이 친척과 함께 기업 하나를 경영했다. 한 현급 지도자는 그의 친척 명



마을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결정

문/장판(张 凡)

나는 정부 부문에서 일하는데 일찍 권세 있는 사람이었던 터라 마을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다. 현재 나는 동네 유명인이 되다싶이 했고 성 시와 현금의 TV 에서 모두 나를 인터뷰했다. 나는 순식간에 한가지 결정을 내려 작은 마을의 위아래를 놀라게 했다.

죽을 병에 걸렸다

일찍 나는 병투성이였는데 무슨 저혈압이든, 발 뒤축이 튀어나온 것 같은 이런 잔병은 별것 아닌데 가장 힘든 것은 심장병과 간질성 폐렴이다. 나는 여섯번이나 죽음을 체험했으며 구급상자만 세계 있는데 집에 있고 사무실에 있고 그리고 하나는 몸에 지니고 있었다.

1982년에 나는 간질성 폐렴이 발견되었다. 의학을 조금 알고 있다면 모두 알다싶이 이것은 암이며 사망률은 95%에 이른다. 나는 기본적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는데 반년을 출근하지 못하며 아무 약이나 다 먹었고 무슨 의사라도 다 보았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입을 벌리고 할딱거렸다.

어느 날 나는 겨우 몇살배기 딸을 데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생면부지의 산동 로인이 나를 불러 놓고 말했다. “아가씨, 당신은 목숨을 앗아가는 병에 걸렸는데 내 약 세봉지에 5원인데 사 가지고 먹고 만약 세번의 고열을 이겨내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거야.” 그대로 했더니 목숨만은 건졌는데 한 개의 폐엽이 타 죽었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유행하는 감기는 피할 수가 없었다. 나는 수시로 죽을 수 있어 가족들은 항상 내가 불안해 보였다.

1999년 초를 기억하고 있다.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도 괴로운 탓인지 직장 에서 근무하던 나는 갑자기 병이 도져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혼미로 인사불성이 되었다. 의사는 속수무책이었고 가족들은 죽은 사람의 옷까지 나에게 입혔

“나는 점점 허약해 지면서 일상적인 사소한 일조차 정리할 수 없었어요. 불쌍한 어머니는 차를 몰고 나를 시내에 데리고가 기분을 전환시켜 주었어요. 나는 앞으로의 나날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아방은 회상하며 말했다.

설상가상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근 4년 동안 아방은 직장을 그만두었다. 병에 걸린 시초에는 그녀는 그래도 출근할 수 있었지만 몇 달 후 그녀의 시력이 약해졌는데 의사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무엇을 보아도 흐리멍덩했는데 이것은 그녀를 몹시 두렵게 했다. 이어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아방은 색맹증이 생겼는데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시장에서 채소를 구별할 수 없고 스스로 밥을 지을 수도 없고 휴대전화마저 사용할 수 없었어요. 거리에서 나는 낯선 사람에게 버스 번호를 알려 달라 했고 신호등의 색상도 정확하게 보지 못했어요”

아방은 국가 안과 과학원의 최고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술이 가장 뛰어난 의료진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흔치 않는 장애증에 걸렸는데 나중에 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방은 자살할 생각을 했는데 몇년간 그녀는 집안의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백약이 무효인 병을 앓고 있는 터라 그녀는 도저히 맞설 수 없었다. 돌이켜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 그녀가 죽으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녀는 그들의 유일한 자식이었다.

무지개를 또 보았다

아방이 몹시 고통스러울 때 한 동료가 《전법륜(转法轮)》이란 책이 그녀를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녀에게 추천해주었다. 이리 하여 아방은 인터넷에서 《전법륜》을 다운로드 하여 글자체를 32호 크기로 확대하였다. 아방은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동료들과 책 속에 담긴 내용을 교류했다. 아방은 말했다 “ ‘진, 선, 인(真、善、忍)’ 이 나의 삶을 환히 비춰 주었는데 햇살이 대지를 비추는 듯 했어요. 몇 년 동안 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지 깨달았어요. 나는 전혀 ‘진, 선, 인’ 에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법륜》이 나를 깨우쳐 주었어요.”



■ 파룬궁 제5조 공법을 런마하는 아방. 현재 그녀는 다시 건강을 얻었고 또 광명을 보았다.

어느 날 아방은 책장에서 헌 책 한권을 뒤적이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작은 활자의 인쇄를 볼 수 있게 된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다그쳐 출판된 《전법륜》을 찾아 내어 책을 펼쳐서 읽었다. 그녀는 말했다. “야, 그 글자들은 더는 희미하지 않았고 하나하나 아주 또렷하게 눈에 띄었어요. 이걸 정말 기적입니다!”

그리고 아방은 파룬따파의 5조 공법을 배워 런마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부근 공원에서 런공했다. 그녀는 말했다. “런공을 한 후 나의 몸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에너지가 몸 안에서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파룬공 서적을 읽고 런공을 하고 나서 아방의 건강은 빠르게 호전되었다. 그녀는 모든 약물 복용을 멈추었지만 결핵은 재발하지 않았고 그녀는 보청기도 떼어버렸다.

지금 아방은 심신이 건강해져 이로부터 더는 하루도 병가를 내지 않았다. 기적으로 회복된 말만 하면 아방은 파룬따파 은혜에 감사드리며 격동되어 말했다. “‘진, 선, 인(真, 善, 忍)’은 나에게 광명을 가져다 주었고 나에게 생명의 진리를 밝혀주었는데 이것은 내 개인 품행의 핵심 지도입니다. 이 길은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방의 인생을 놀라운 역전이다.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그녀는 밝은 빛을 안고 있었다. ◇



파룬따파는 또 파룬공이라 부르는 성명쌍수(性命雙修)의 불가 상승의 수련대법이며 리홍쯔 선생이 1992년 5월에 중국 대륙에서 전해 나왔는데 지금은 이미 세계 100 여개 나라와 홍콩, 오문, 대만에 널리 전해졌고 수련자는 날마다 많아지고 있다.

전세계 역에 달하는 파룬공 수련자들이 리홍쯔 선생의 교시에 따라 엄격히 《전법륜(轉法輪)》 저작 중의 요구에 따라 “진, 선, 인(真, 善, 忍)”을 근본지도로 하며 좋은 사람으로 시작해 부단히 자신의 심성을 제고한다. 동시에 5 조의 느리고 아름다운 공법을 보조로 하는데 파룬따파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기이한 효과를 증실했다.

모든 파룬따파 저작 그리고 음반과 영상물 자료는 모두 파룬따파 인터넷 falundafa.org 에서 면비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 답을 넘는 방법은 33 페이지에서 보시라.)

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는 종래로 자신이 공로를 세웠다고 하지 않았다. 공장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그를 찾아와 옷돈을 주고 선물 등을 주면 그는 모두 “진, 선, 인”의 심성표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면서 거절하거나 되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리해가 안되는 상대방이 다르게 대할까 봐 걱정하자 왕중밍은 그에게 알려주었다. “나는 파룬공을 수련하기에 ‘진, 선, 인’에 맞지 않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왕중밍은 누구에게나 잘 해주었다. 부문에서 누군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면서 1년 남짓 출퇴근길을 자진해 나섰다. 친척이나 친구, 동료, 이웃이 어려움을 격든 간에 그는 모두 돈을 내고 힘을 내서 도와주었다. 설을 설 때면 흔히 아는 몇 명의 외로운 사람들을 집에 데려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떠날 때는 설날 선물을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 해마다 이렇게 했다.

왕중밍은 이렇게 일하고 생활하는 속에서 그의 신념을 지키며 “진, 선, 인”에 대한 리해를 묵묵히 실천하였기에 직장에서 동료들 속에서 이웃사이에 높은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1999년 7월 중국 공산 사당은 중국 대륙에서 파룬따파를 전면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다. 왕중밍처럼 이렇게 파룬따파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사회 출중한 사람도 레외 없이 박해를 받았다. 왕중밍은 “진, 선, 인”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여 2017년 9월 28일 아침에 집에서 중경시 위중구역 국가 보안 경찰에 의해 납치되었고, 2018년 1월 26일에 법정에서 불합적인 심판을 받았다. 두 변호사는 법률 조문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무죄 변론을 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진실과 선함, 관용,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남긴 훌륭한 전통 문화이기에 마땅히 크게 선양해야 하는데 어떻게 왕중밍 집에서 발견한 “진, 선, 인(真, 善, 忍)” 글자가 적혀 있는 CD를 죄를 정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단 말인가?

글쎄, 어느 나라 정부도 그러지 않았다. 파룬공은 이미 세계 100 여개 나라에 널리 전해지고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리홍쯔 선생과 파룬따파가 인류 심신 건강에 기여한 걸출한 공헌으로 하여 여러 나라 정부의 상장, 지지 의안과 지지 서함을 3500 여건을 받았다. 파룬따파의 주요 저작 《전법륜》은 39가지 언어 문자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공개 발행하고 있다.

천만명의 왕중밍과 같이 파룬따파 속에서 새 생명을 얻은 수련자들이 목숨을 걸고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심신이 익을 얻어 하늘이 내린 행복을 누리게 하고 있다. ◇

화시키니 정말 대단합니다. 한차례 청렴한 관리가 근절 못하는 고부 갈등은 이렇게 해소되었다.

1998년 10월 아내도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다. 부부는 “진, 선, 인(真, 善, 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고 갈등에 봉착하면 먼저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여 부부가 화목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조화를 이루어 한 집안 식구가 화목해졌다.

십여명이 해산물에 중독, 오직 그만 무사했다

1999년말, 왕중밍은 직장의 10여명 동료들과 함께 부원장이 령술하에 본계 제철소로 출장을 갔다. 본계 강철소에 도착한 후 갑주는 모두에게 식사를 대접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생선 중독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밤 10여명이 잇따라 중독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실려가 구급치료를 받았다. 다음 날 아침까지 조사한 결과 왕중밍만이 중독이 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모두들 의론이 분분했다. “이상해요, 왜 우리는 모두 중독되었는데 하필 파룬궁은 중독되지 않을까요?” “좋고 나쁜 것은 사람의 몸이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보아하니 그래도 백독이 침식 못하는 파룬궁이 좋습니다.” “파룬궁은 진짜 공부인 것 같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모든 선전 도구가 대대적으로 파룬궁을 제멋대로 모욕하고 있었는데



사실 앞에서 이들은 생각을 뒤짚어 사고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이들 중 상당수가 왕중밍의 가족을 만났을 때 여전히 당시 상황을 흥미진진하게 말하고 있다.

그 후 그 부원장은 스스로 왕중밍을 찾아가 물었다. “파룬궁이 왜? 장쩌민은 왜 너희들을 누르려 하는나?” 왕중밍은 말했다. “《전법륜(转法轮)》이 책을 빌려 보시고 이 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세요” 부원장은 가지고 가 보았다. 보름 쯤 뒤에 그는 책을 왕중밍에게 넘겨주며 현명하게 말했다. “내가 봤는데 문제가 없으니 당신이 잘 려마하세요!”

사업과 생활 속에서 “진, 선, 인”을 실천

왕중밍은 중예사이디의 “중청년 전문가” 이자 부문 기술 핵심이다. 그는 보강, 잔강 강철, 베트남 하정,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국내외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중요

파룬따파 흥전 세계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대형 화물차 운전사 바라던 기적 이루어져

문/천칭허 (陈庆河)



후룬베이얼 대초원은 경치가 아름답고 풍경이 좋은 곳이다: 청신한 공기, 씻은 듯이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유유히 떠 있고 지상에는 새파란 풀이 요처럼 깔려 있으며 또 달리는 준마와 떼를 이룬 소와 양이.....

이 아름답고 멋진 초원 도로 위에 대형 화물차 한 대가 질주하고 있다. 흥얼거리며 노래하는 운전사는 이 흥겨운 풍경에 도취돼 있었다.....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누가 그가 겪었던 아픔을 짐작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함께 그의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불치병에 걸리다

저는 천칭허라고 한다. 올해 50 살이고 하북 사람이며 직업은 화물차 운전사이다. 나는 그동안 내 몽골 후룬베이얼에서 운반용 차에 매달려 살아왔는데 삶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거나 낙관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인생은 예측할 수 없었다. 2016년 6월 중순, 나는 몸이 불편하고 항문이 처진 것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통증이 있는 것을 느껴 자신이 암치질에 걸렸다고 의심했다. 진료실에서 약을 좀 처방받아 복용 후 도리어 통증이 심해져 점차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당시 나는 50 살도 안됐는데 아직도 젊다고 여기며 별 일 없다고 생각했다.

2016년 7월 7일 아내는 나를 데리고 후룬베이얼 시의 한 삼갑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B형 초음파 핵자기 실험을 한 뒤 의사는 전혀 접수할 수 없는 참혹한 진실을 아내에게 알려주었다: 골암이 였는데 꿈무늬뼈 첫 마디 둘째 마디 뼈는 이미 검은 색에 벌집 모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암세포는 이미 퍼져 있었는데 모세 혈관과 한테 섞여 있어 전혀 분리할 수 없기에 수술을 할 필요도 없었다. 괜히 나에게 고통을 더 주고 또 자칫하면 사지마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환골탈태적인 환생

가망이 없는 날은 거의 8년동안 지속되었다. 1996년 초에 상해로 출장 갔던 왕중밍은 인연이 닿아 파룬궁을 배웠다.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몸은 아주 뚜렷하게 변해 버렸다 — B형 간염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졌으며 그의 정신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다. 몇 달 만에 중경으로 돌아온 후 가족들 눈



■ 1999년 7월 파룬궁이 박해받기 전, 상해시 파룬궁 수련생 단체 런공 장면

에는 그가 마치 한 사람을 바꾼 듯이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말 신기합니다!” “파룬궁은 정말 신기합니다!” 친척 친구들의 놀라움과 축하 속에서 전 가족이 마침내 힘들었던 날을 마감했다.

병이 나아지자 왕중밍은 이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1997년 아이가 태어났는데 총명하고 건강했다. 왕중밍 역시 파룬궁을 수련하였기에 심신이 건강하게 되고 근무 성적이 뛰어나 동료들과 직장 상사의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4년 연속 회사의 선진 개인, 이중 문명인으로 평정 받았다.

자신의 문제를 찾고 고부 간의 갈등을 풀다

아이가 태어난 후 친척들이 모두 와서 도와주었는데 사람이 많고, 일이 많으니 모순이 많았다. 한 번은 아내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아내는 죽을 지경으로 억울하다며 그에게 하소연하였다. 왕중밍은 잠시 고민한 끝에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나에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런공인은 무슨 일에 봉착하던 우연하지 않기에 모두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찾아야만 하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고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갈등을 버리고 전혀 그런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된 사유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제를 찾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아내는 화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존경심이 생겼다—강산은 변해도 천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지혜와 경지인가? 이 파룬궁은 사람의 몸을 건강히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도덕과 사상을 승

환골탈태적인 변화

문/난이원 (南一芸)



1999년 대륙의 공식 보도에 따르면 역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있는데 그중에 많은 고급 지식인, 사회 속의 걸출한 인물들이 있다. 파룬따파 수련을 통해 그들은 몸의 건강을 얻고 도덕을 승화시켜 사회 전반의 양성 발전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왕중밍(王忠明)씨는 그중 한분이다. 그는 교수급 고급 공정사로 중예 싸이디 공정기술주식회사에 영입된 "중년층 전문가"이다.

청년 재지는 "B형 간염"에 걸렸다

1965년 8월 왕중밍은 중경시 합천의 일반 교사 가정에서 태어났다. 왕중밍은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부모님은 외양간에 갇혔다. 돌보는 사람이 없기에 포대기에 싣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지식청년인 큰 형님을 따라 시골에 내려가 현지 농민의 집에 맡겨 졌다. 문화 대혁명이 끝난 후에야 그들 집은 비로소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왕중밍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성적이 우수했다. 이후 중경대학에 진학했는데 성적이 우수하기에 학교에서 추천하여 연수했다. 1989년 연구생을 졸업한 뒤 그는 과학 연구와 공정 기술 위주의 중경 강철 디자인 연구원(중예싸이디의 전신)에 가서 일했다.

의기양양한 그가 뜻을 올리고 출항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뜻밖에도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겨우 한달간 일한 그는 B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는데 게다가 의학적으로 B형 간염 치료 약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알려 주었다. 이 일격은 이 젊은이의 모든 인생의 리상, 원대한 포부를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했다. B형 간염이란 떨쳐 버릴 수 없는 이 고질병은 이때부터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간이 좋지 않고 비위도 좋지 않아 그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 몸이 수척해지고 현기증이 나며 속이 메스껍고 게다가 황달,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이 있었다. 체력이 버티지 못해 매일 밤 8시에 잠을 잤다. 최악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는 서양 의학, 중의학, 처방, 기공을 두루 시험해 보았지만 결과는 아무런 수확도 없었다. 특히 슬픈 것은 이 병 때문에 결혼한 지 여러 해가 되어도 그는 감히 아이를 원하지도 못했다. 회사 지도자들은 직장에 환자가 하나 왔는데 이름이 왕중밍이란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7월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7월 9일에는 침대에 누워 스스로 할 수 없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나는 감히 맞설 수 없었는데 꿈과 같았다. 보름 전까지만 해도 돈을 벌기 위해 체면을 세우며 차를 몰고 후룬베이얼 대초원에서 달렸다. 사람을 황홀하게 하는 후룬베이얼 초원이여, 푸른 하늘과 흰 구름, 무성한 푸른 물결, 출렁이는 호수, 구성진 목가, 구불구불한 냇물이 구구히 먼 곳을 향해…… 모든 것이 모두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고통속에서 허덕이다

매일 아이를 챙겨 주는 것처럼 나를 보살피고 주고 밥먹여 주고 몸을 닦아주고 제 똥 오줌을 시중드는 아내를 보니 나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다. 아내가 점점 초췌해지는 얼굴로 내 앞에서 억지로 짜낸 웃음과 창백한 말로 위로하는 것을 보면 나는 가슴이 아팠다.



시간은 하루 하루 지나고 우리는 모두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 나의 살려는 눈빛과 고달픈 신음 소리는 역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병마의 그늘 아래서 나는 한없이 약해지고 작아졌는데 병마가 가져다준 아픔을 참아야 했다. 나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것은 마치 한자루의 칼처럼 상처 입은 나의 뼈 속에서 밖으로 무엇을 후비는 것 같았고 또 마치 거대한 돌처럼 이미 삭은 나의 뼈에 눌러 있는 것 같았다!

하북성의 고향집에서 보내온 한약재를 마셔 왔고 병 사례로 구입한 진통제 "타이러닝"으로 나는 기적을 바라고 있었다. 통증 약의 양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통증은 조금도 덜어 지지 않았다. 가족이 소곤소곤 속삭이는 것을 보고, 아내가 니몰래 아래층으로 내려가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은 말 못할 기분이었는데 마치 무슨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듯 했다.

7월 20일 아내는 나와 상의하며 말했다. "북경의 전무가와 내몽골 전문가의 건의는 똑 같이 보수적인 치료예요 우리는 하북으로 당신의 고향에 가서 한의학과 의사한테 잘보도록 합시다." 7월 29일 내몽골의 의사는 120 구급차에 직접 나를 싣고 기차 침대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에서 내린 뒤 곧바로 창주 중심 병원에 입원했다. 그들이 북경 전무가와 함께 대진한 결과 여전히 보수적인 치료였다.

기적을 기원하다

나는 아내와 집을 세내어 살았다. 한약은 계속 복용하고 진통제는 한번에 반알

부터 두알로 증가했는데 때로는 울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으며 뼈의 아픔은 죽을지 경이여 참으로 살래야 살 수 없고 죽지도 못했다.

나는 아내의 눈물겨운 마음을 느꼈다. 그녀가 나를 고향에 내려보낸 것은 나더러 다시한번 고향의 숨결을 느끼며 그림던 친척 친구를 만나 고향의 물을 마시고 고향의 밥을 먹게한 것이다! 그녀는 비록 나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지만 그녀는 나의 실망을 덜어줄 수 있었다.

아내는 나에게 “아직도 선택이 남아 있다면 나는 여전할 것이며 만일 기적이 일어난다면 나는 무릎을 꿇고 천지에 감사드릴 것이니 우리 함께 기적을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다

큰누나는 파룬따파 제자이며 그녀는 자주 들러 나를 보며 나에게 《전법륜(转法轮)》 책과 미니 카드 스피커를 가져다주었는데 나더러 속으로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를 읽으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 사당의 무신론 교육과 파룬궁에 대한 모독 선전을 받았기에 나는 이것이 바로 나의 목숨을 구하는 법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생각했다: 내 친누나이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지경이 된 나더러 책을 보라고 하니 도대체 나를 아끼는 마음이 있는가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아내에게 책과 스피커를 가져가라고 했다.

또 이들이 지난 후 그녀는 나에게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다》는 책을 가져다주면서 누워서 한가한데 책을 읽으면 나에게 좋은 점이 있다고 알려 주었다. 나는 허술하게 아무렇게나 책을 펼쳐 보았는데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다. 정말인가 아닌가? 그들이 말하는 리홍쯔 사부님은 이렇게 신비로운가? 설마 그는 신선인가?! 내가 다시 읽을 때 마음은 안정되지 않았다. 눈물겨운 이야기였으며 나는 책에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사람마다 다행이라 느끼며 리홍쯔 사부님의 구도를 받을 수 있고 파룬따파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들이 정말 복하고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다. 나는 거의 울면서 모든 이야기를 다 읽었다.

다음 날인 음력 8월 12일 《전법륜》 책을 펼쳐들었다. 마음은 매우 평온했는데 당시 아무런 환상도 없었다. 나의 병이 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북경의 권위 전문가들조차 나를 거부했으니 내가 아직도 무슨 욕심이 있겠는가?

《전법륜》 펼쳐 제1장 “진정하게 고층차(高層次)로 사람을 이끌다” 를 보고 마치 기공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았다. 내 몸이 이 정도로 다리 근육마저 없으니 나는 기공도 런마할 수 없다. 에라, 그냥 이야기로 보자! 생각지도 못하게 나는 단

파룬궁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효률 98%

파룬궁은 1992년 5월에 전해지자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고 마음으로 마음에 전하면서 수련 인수가 급증하였는데 의학계와 정부의 관심을 끌었다. 현대 의학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점에서 파룬궁은 몸과 마음 등 여러 방면에 작용을 일으키는 자아 보전 체계이다. 많은 연구 조사에 따르면 파룬궁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고 심신을 개선하는 데는 신기한 효과가 있다.

1998년 중국 국가 체육 총국에서 북경, 무한, 대련 및 광둥성의 의학계전문가를 조직하여 3.5만명에 가까운 파룬궁 수련생에 다섯 번의 의학 조사를 하였는데 파룬궁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유효률은 98%를 차지했다.

일부 난치병, 불치병 환자는 파룬궁을 열심히 수련하여 몸이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고 절대 다수의 수련생은 파룬궁을 수련한 후 도덕이 승화되고 담배, 음주와 도박 등 좋지 않은 취미를 끊어 정신 상태가 크게 개선됐다.

표본 추출 조사

1998년 9월 중국 국가 체육 총국에서 파룬궁 수련자 12,553건의 표본 추출 조사를 했는데 질병 완치와 기본 건강회복률은 77.5% 이고 호전자 수 20.4%를 합치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전체 유효률은 97.9%였다.



북경 만건 사례 조사 보고

1998년 10월 북경시 서성구, 송문구, 동성구, 선무구 및 조양구 5개 구역의 도합 200여개 파룬궁 련공점을 조사 통계하였는데 효과적인 조사인수는 12,731건이었다.

통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58.5%이고 체질 증강이 80.3%이고 정신 상태 개선이 96.5%, 파룬궁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유효률은 99.1%다. ◇

의 5조 공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바바라는 회고하며 말했다. “이 평범한 것 같은 공법은 도리어 불가사의한 힘이 있었는데 나는 파열된 뇌속에서 독소가 제거되고 부러진 신경을 잇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세트의 공법을 런마하고나니 나의 온몸이 오랜만에 따뜻하고 건강한 느낌에 휩싸여 있었어요. 5개월 후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들은 나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에 놀라 했어요”

몸이 회복된 후 바바라는 다시 자신의 일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과 복구 작업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작업량이 막심한 벤디고시 청사 내부의 벽화와 장식의 복구 작업에서 천장이 심하게 손상된



■ 바바라가 참여한 벤디고시 의회 건물 복구 공사는 호평을 받았다.

상태에서 화면과 색깔이 전체적인 이미지에 맞게 복원되게 하려면 많은 곳은 복원사의 상상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체력과 끈기가 필요했다. 복구 작업 중에 바바라는 평지처럼 높은 선반을 기어오르고 기어 내렸다. 사람들은 정말로 이것은 몸이 심하게 훼손되었던 사람이 완성한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영국 《벤디고 잡지》(Bendigo Magazine) 기자 특별 인터뷰에서 그녀는 기꺼이 말했다. “이 모든 힘은 파룬따파에서 온 것입니다. 첫째, 이 곳은 심각한 정도로 훼손되었기에 파룬따파 수련이 없다면 나는 이 공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고가 난 후 파룬따파를 수련하지 않았다면 나는 조그만한 복구 작업이라도 끝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바바라는 파룬따파를 수련한지 이미 14 년이 된다. 거의 목숨을 잃을 때 파룬따파가 그녀의 인생을 신기하게 복원시켰다. 그녀의 붓 놀림을 거쳐 복원된 옛 벽화가 환생한 것처럼 그녀의 생명은 다시금 빛났다. ◇

숨에 몇 십 페이지를 읽었는데 팔이 조금 피곤해져 잠시 자고 싶었다. 그때 나는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이미 나를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책을 읽었는데 몸은 전혀 아프지 않았고 오랜만에 편안하게 단잠을 잤다. 아내가 나를 깨운 후 나는 조용히 《전법륜》을 들고 천천히 계속 보았다. 그리고 나서 약을 먹으면 토하고 싶고 밥도 먹고 싶지 않았다.

음력 8월 15일에 나는 모든 진통제와 한약을 포기했는데 밥조차 먹을 수 없었다. 비록 약을 먹지 않고 밥을 먹지 않아도 몸이 가벼워지고 심한 통증이 없거니와 또 매일 배변을 했다. 7일 동안 지속해 왔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나는 작은 한 그릇 국을 들이켰는데 한줄기 난류가 위로부터 온몸을 녹였다. 다리를 굽혀서 몸을 뒤척일 수도 있고 허리는 놀러도 아프지 않았고 종양도 줄어들었다. 온몸이 나른하게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뚜렷하게 느슨해지며 아주 편안해졌다.

서서히 나는 또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위대하고 자비로운 사부님을 보았는데 사부님께서는 공중에서 손을 뻗어 나의 다리에서 작은 손수건 같은 것을 벗겨 내셨다. 그리고 나는 잠을 깬데 다리가 아주 편해져서 조금도 무겁지 않았다. 나는 행복하게 아내에게 내 다리를 보여주면서 누워서 좌우로 움직이며 그녀에게 보였는데 우리들은 매우 설레었다. 우리가 함께 빌었던 기적이 나타났다! 자비롭고 위대한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 한동안 우리집에는 파룬궁 수련생 여러 명이 왔는데 그들은 매일 저녁 나와 함께 《전법륜》을 읽었고 내가 파룬궁 서적을 읽고 런공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격려해주고 나와 그들의 수련 체득을 교류했다. 사람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를 더욱 사부님을 믿고 법을 믿고 자신을 사부님께 맡기게 하였다. 나는 매일 《전법륜》을 보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런공을 했다. 나의 몸은 빨리 회복되었는데 당초 누워서 《전법륜》을 읽던데로부터 지금은 이미 홀가부좌로 책을 읽고 있으며 당초 돌아 눕는 것도 갈망이었는데 지금은 2리 길을 걷는 것은 모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부님께서 나를 도와 몸을 정화해 주셔서 생명을 이어 가게 해 주셨기에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또 자동차를 몰고 후룬베이얼을 질주하고 있다! 여기서 자비롭고 위대한 사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부님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



녀화가

7미터 나무 선반에서 떨어진 후

화가 바바라 샤퍼 (Barbara Shafer) 는 7미터 높이의 나무 선반 위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현기증으로 세멘트 바닥에 떨어졌다.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녀 인생의 궤적을 바꿔 놓았다……



■ 바바라 샤퍼

바바라 샤퍼 (Barbara Shafer) 는 호주에서 살고 있는 폴란드계 화가다. 그녀는 천성적으로 착하고 열정적이고 활달하며 입심이 좋고 동작이 민첩하며 일거일동에 예술가의 우아한 기품을 드러냈다.

젊은 시절 그는 폴란드에서 7년간 정통 미술 전공 훈련을 받았다. 공산당 정권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바라는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나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뒤 호주에서 건축 벽화 복원에 나섰다.

지금까지 호주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다. 그동안 그가 참여해 복원된 크고 작은 역사적 건축물은 멜버른과 주변 지역 곳곳에 있다. 도심의 저명한 금융거리 19세기에 들어선 ES&A 은행 빌딩에서 성 의회 의사당 건물안의 평화로운 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또 120여년의 역사를 가진 벤디고시 의회 건물 (Bendigo TownHall) 에서 옛 건물 내의 장식과 벽화는 바바라의 절묘한 필치를 통해 과거의 찬란함을 재현하였다.

바바라는 예술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열렬히 좋아했다. 여성이 참여한 적이 없는 이런 업종에서 그녀는 그속에 심취하고 있었다. 유적지 벽화를 복원하는 것은 바바라를 놓고 말하면 별천지 같아 잠시나마 떠들썩한 세상을 피해 마음속의 조용함을 찾을 수 있었다. 비록 일이 하나씩 계속되고 있으나 자신의 로고를 되새긴 여러 색채가 뒤섞여 있는 옛 벽화가 다시 태어날 때마다 그녀는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운명은 사람을 농락했다. 한차례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엄청난 사고로 하여 그녀의 인생 궤적을 바꾸어 놓았다.

2003년 11월 11일 바바라는 홀로 7미터 높이의 안전 창치가 없는 나무 선반에서 성당 내부 벽화를 복원하고 있었다. 갑자기 웬지 아찔한 현기증이 그녀를 균형을 잃게 하여 그녀는 나무 선반에서 제대로 굴러 떨어져 머리와 손이 먼저 땅으로 향해 ‘퐁’ 하고 세멘트 바닥에 처박혔다.

그녀는 회고하며 말했다 “나는 두개골이 부서지는 소리를 똑똑히 듣고 의식을 잃었어요”

응급 처치를 통해 가족들이 혼수 상태에 있는 그녀를 깨어나게 했지만 몸 상태는 사람을 소름이 끼치게 했다. 바바라는 “당시 의사는 두개골이 세쪽으로 갈라졌고 무릎과 손목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나에게 알려주었어요. 수술 후 온몸이 모두 껀뻤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일곱 곳을 꿰맸고 체내에는 많은 라사와 강판이 들어가 있었으며 모든 치아가 다 떨어져 있으니 금속 실로 고정해야 했어요.” 라고 말했다.

“왼쪽 귀는 청력이 상실되고 머릿속엔 잡음이 가득했으며 두 눈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왼손은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온몸이 아팠는데 격렬한 통증은 거의 나로하여금 기억을 상실하게 했어요. 나는 운이 좋게 살았지만 이미 껀인이 되었어요. 남편과 아들은 내 얼굴이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했어요”

아마 운명이었는지 모르고, 아마 운명은 그녀에게 대문을 열어 놓은 것일 지도 모른다. 그녀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도리어 전기가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하기 몇 달전 그녀의 한 친구가 그녀에게 파룬궁을 추천함과 아울러 기이한 책 《전법륜(转法轮)》을 추천하며 그녀가 보기를 희망했었다. 바바라는 “친구가 나에게 이것은 신기한 책이라고 알려주자 나는 웃으면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갔어요” 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되지 않아 그녀를 보러온 친구가 또 다시 그녀에게 《전법륜》을 언급했다. 침대에 누워 있던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가져오 너라 지금 내게 시간이 있으니 나에게 가르쳐 줘” 라고 시원하게 말했다.

그때 시력이 너무 낮아서 처음에 책을 읽을 때 매번 몇 페이지밖에 볼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책 속의 내용에 깊이 빠져들었다. 바바라는 말했다.

“《전법륜》은 내 생애에서 많은 리해하기 어려운 경험을 해석했고 내 삶의 많은 의혹을 해답 했어요. 세번째 날 밤 나는 새벽 2시 반까지 독서하였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량손과 팔 사이에 강렬한 전류가 흘렀어요. 그 이후로 내 몸의 통증은 전부 사라졌어요!” 이어 그녀는 매일 몸에서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실감하였는데 몸이 불가사의한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다.

빠르게 그녀는 몸에 석고, 라사와 복위 장치를 뜯어 버리는 결정을 내리고 파룬궁